

## LG 새 외인 치리노스, 개막전부터 103구 역투...6이닝 2실점

등록 2025.03.22 16:29:07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2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5 KBO리그 개막전 롯데 자이언츠 대 LG 트윈스의 경기, 1회초 LG 선발 치리노스가 역투하고 있다. 2025.03.2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박윤서 기자 = 프로야구 LG 트윈스의 새 외국인 투수 요니 치리노스가 정규시즌 개막전에서 강렬한 첫인상을 남겼다.

치리노스는 22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2025 신한 쏠뱅크 KBO리그 정규시즌 개막전에 선발 등판해 6이닝 5피안타 3사사구 8탈삼진 2실점으로 호투했다.

지난해 11월 LG와 총액 100만 달러에 계약한 치리노스는 올해 시범경기 2경기에서 8이닝 9피안타(1피홈런) 5실점으로 흔들렸으나 이날 개막전 선발 중책을 맡았다.

1회 황성빈을 포수 스트라이크아웃 낚아웃으로 처리한 치리노스는 후속 타자 고승민과 나승엽을 연거푸 땅볼로 정리하며 순조롭게 출발했다.

치리노스는 2회 선두 타자 빅터 레이에스를 좌익수 뜬공으로 처리한 뒤 윤동희와 전준우에게 연속 안타를 허용해 1, 2루 위기에 처했다.

이후 치리노스는 손호영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운 후 유강남을 중견수 뜬공으로 유도해 고비를 넘겼다.

3회 박승욱과 황성빈을 연이어 삼진, 고승민을 유격수 뜬공으로 막아낸 치리노스는 4회 주춤했다.

치리노스는 선두 타자 나승엽의 땅볼 타구를 직접 처리한 후 빅터 레이에스에게 2루타, 윤동희와 전준우에게 연달아 볼넷을 헌납했다.

1사 만루에 몰린 치리노스는 손호영에게 2타점 적시타를 얻어맞고 실점을 남겼다. 후속 타자 박승욱과 황성빈은 각각 헛스윙 삼진, 포수 파울 플라이로 봉쇄하며 추가점을 내주지 않았다.

치리노스는 5회 안정감을 되찾았다.

고승민을 스트라이크아웃 낮아웃, 나승엽을 3루수 뜬공으로 묶은 치리노스는 레이에스까지 2루수 땅볼로 처리했다.

6회 1사에서는 풀카운트 끝에 전준우에게 볼넷을 줬지만, 손호영과 유강남을 각각 헛스윙 삼진, 스트라이크아웃 낮아웃으로 막아냈다.

첫 등판에서 투구수 103개를 소화한 치리노스는 7회 김진성과 교체돼 경기를 마무리했다.

경기 전 LG 염경엽 감독은 올 시즌 치리노스가 15승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치리노스는 KBO리그 데뷔전에서 쾌투를 펼치며 승리 투수 요건을 충족했다.

반면 KBO리그에서 4번째 시즌을 맞은 롯데 자이언츠의 에이스 찰리 반즈는 난타를 당하며 무너졌다.

3회까지 무려 81개의 공을 던졌고, 안타 8개(1피홈런)와 사사구 3개를 내줘 7실점을 남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donotforget@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